

# 기사 한 줄에 기차 타고, 흔적 없이 사라지는 이주노동자 사망 집요하게 쫓는 이 사람

-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양한웅 집행위원장 인터뷰

바다 선전위원

이주노동자 사망 기사가 뜨면, 곧장 서울역으로 향한다. 가는 길에 지도 앱을 켜고 그 지역 장례식장을 검색한다. “혹시 오늘 이주노동자 왔습니까?” 안치실을 확인할 때까지 전화를 돌린다. 그 지역에 없으면, 사고 현장 인접 지역 장례식장까지 찾는다. 그 사이 추모 기도를 해 줄 스님도 찾는다. 이주노동자 산재 사망이 확인될 때마다 반복되는 양한웅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집행위원장의 일상이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가 사망한 이주노동자의 안치실을 직접 찾게 된 지 이제 만 1년이 됐다. 지난해 7월 9일, 구미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폭염으로 사망한 베트남 노동자 응오 두이 룡(사망 당시 23세) 씨를 찾은 게 시작이었다. 계획도, 예정도 없었다. “이렇게 해야 할 것 같아서” 양 집행위원장은 무작정 검색해서 찾기 시작했다. 그렇게 지금까지 14명 사망 노동자의 극락왕생을 빌었다.

양 집행위원장은 “이주노동자는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라며 “처참한 차별의 현실”이라고 말했

다. 5월 13일 양 집행위원장을 만나 이주노동자의 떠나는 길을 집요하게 찾는 이유를 들었다.

## 천 원짜리 우의에 칭칭 감겨 냉동고에

“시신 상태가, 참혹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수사기관이 검사하면 의사가 몸에 칼도 대고 피도 흘리고 하겠죠. 끼임, 폭발 사고로 죽었으면, 몸이 다 찢어져 있고요. 그런 시신을 그냥 비닐로 칭칭 감아놔요. 다이소에서 파는 천 원짜리 우의로요. 핏자국 선명하고요. 장례식장은 그냥 흰 천만 덮어 두는 거예요.”

이 일을 시작하고 양 위원장이 가장 놀랐던 건 시신의 방치였다. 망인들은 대부분 피 흘리거나 몸이 으깨진 상태 그대로 냉동고에 들어가 있었다. 알코올로 몸을 닦거나 옷을 다시 입히는, 한국인 사망자라면 통상 거칠 기본적인 시신 정리도 이뤄지지 않았다. 장례비가 지불되지 않았기에, 장례식장은 들어 온 시신 그대로 보관만 하는 것이다.

그래도 장례지도사들은 추모 기도를 올리러 온 스님과 양 위원장에게 안치실 문을 열어 줬다. “시신을 보고 기도해야 고인이 좋은 곳으로 간다”라며 냉동고 문도 열었다. 가장 처음 찾았던 구미 강동병원 장례식장 안치실엔 배 하나와 맥주 한 캔이 놓여 있었다. 위패와 영정도 없이, 양 위원장과 서원스님은 처참한 시신 앞에서 극락왕생을 발원했다.

망인은 건설 현장으로 이직한 지 하루 만에 죽었다. 김천 포도 농장에서 일하다 폭염 때문에 너무 힘들어 옮겼는데, 폭염으로 사망했다. 당일 한국 노동자들은 오후 1시에 조기 퇴근했고, 망인은 오후 5시까지 홀로 일하다 죽었다. 3주 후 포항에서도 네팔 노동자 우다야 시레스타 씨가 폭염으로 사망했다. 산에서 예초 작업을 하던 중, 한국 노동자는 다 하산하고 홀로 남아 일하다 변을 당했다. 사회노동위가 두 번째로 찾은 망인이다.

### 망연자실 부모는 뺨가루만 받아 든다

양 위원장은 세 번째부터 일단 기차부터 탔다. 사무실에서 앉아 전화를 돌릴 여유가 없었다. 지난해 8월 새우 양식장에서 태국 및 베트남 노동자가 감전사한 전남 고흥으로 갔다. 안치실 풍경은 처참했다. 간이 외벽을 설치한 야외 창고 같은 공간에 냉동고 두 대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말이 양식장이지, 영세한 곳이었어요. 사업주 영감님이랑 아들이 앉아 울고만 있더라고. 자기 잘못이겠지만, 이걸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거기다 욕할 거예요, 뭘 할 거예요.

요. 그때 베트남 노동자 형이랑 친구 10명 정도가 와 있었거든. 영감님한테 ‘분향소 차립시다’ 했어요. ‘이 친구들이 술 한 잔 올리고 같이 밤도 새우려면 시신이 영안실에 있어야 할 거 아니냐. 당신 잘못도 있지 않느냐. 이걸 소홀히 하면 당신도 평생 죄책감으로 살 수 있다. 큰돈 들지도 않는다. 예우를 갖춰야 한다.’ 그렇게 한 30분 설득했고, 영감님이 장례 계약을 했어요.”

양 위원장은 대부분 이주노동자의 시신은 장례 절차를 치르지도 못한 채 화장돼, 뺨가루로 고국에 돌아간다고 했다. 그는 “시신을 방부 처리한 후 국제 화물로 보내려면 천만원 정도가 든다더라. 그쪽 나라 부모에겐 1억 원 정도가 아니냐. 울고불고 자식 기다리던 부모는 시신 확인도 못 하고 유골함만 받아 든다”라고 말했다.

### ‘돈 냄새’ 맡고 찾아오는 브로커

한국인들은 이주노동자 시신으로 ‘돈 장난’도 했다. 이주민이 산재 사망하면 브로커가 등장한다는 건 지역 장례식장 사이에선 알려진 얘기다. 양 위원장은 올해 초 전남 한 해안 도시에서 브로커를 봤다. 이들의 대화를 들은 장례식장 직원들이 먼저 귀땀해 줬다. 그곳엔 브로커와 브로커가 고용한 조문객 1명, 지역 대학교수가 소개했다는 통역인 1명이 와 있었고, 오히려 진짜 지인들이 분향소 바깥에서 쭈뼛대며 편하게 들어가지 못하고 있었다. ‘위장 분향소’ 같았다.

“거제에서 온 사람들이래요. 거기 조선소

때문에 산재 사고 잦잖아요. 두목 브로커랑 고용된 노무사, 2인 체제였어요. 이주민 커뮤니티에 사망 소식이 퍼지면, 브로커랑 연결된 사람들이 브로커한테 유족을 연결해 줘요. 브로커는 유족 위임장 하나로 완장 차고 오는 거죠. 합의금으로 회사에 3억 5천만 원을 처음 불렀고, 이후 1억 원 정도로 합의 봤대요. 떼가는 게 50%일지, 60%일지, 누가 알아요.”

장례식장 직원은 협상하던 공장 관계자가 ‘차라리 유족에게 직접 돈을 주고 싶다’라며 하소연도 했다고 양 위원장에게 전했다. 그는 “그들 돈을 받는 통역사가 유족 측에 통역을 제대로 해 줄지도 모르는 일”이라며 “브로커가 이주민 커뮤니티에 깊이 유착돼 있어, 손을 쓸 도리가 없다고 하더라”며 답답해했다.

### “죽음을 사라지지 않게 분향소 투쟁에 나서자”

의문스러운 죽음도 있었다. 올해 한 지역에서 배수관 작업을 하다가 매몰 사고로 죽었다는 태국 노동자의 일이다. 기사를 보고 급히 기차를 타고 간 그는 현장을 보고 깜짝 놀랐다. 배관 공사를 하던 도랑의 깊이는 불과 2미터가량이었고, 폭도 두 팔 벌린 정도의 너비였다. 인근엔 소형 불도저가 놓여 있었다. 그는 “매몰되기가 힘든 구조인데 매몰 사고로 죽었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추후 경찰이 다시 조사한다고 말이 나왔지만,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는 모른다”라고 말했다.



▲ 2026.5.13. 조계중 사회노동위원회 사무실에서 만난 양한웅 집행위원장. 사진 : 한노보연

사고 현장과 장례식장을 찾던 그는 이제 지역 노동청과 사업주도 찾아간다. “일하다 사망한 이주노동자에게 예우를 다하라”라고 요구하기 위해서다. 지난 2월, 2명의 이주노동자가 연이어 죽은 전남 영암 대불산단 사건이 계기가 됐다. 양 위원장은 당시 노동부 목포지청을 찾아가 “영안실에 분향소를 차려라. 대체 노동부가 뭘 하고 있느냐? 관리 감독은 제대로 하고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 직후 사고 현장에 기도를 올리기 위해 시경·동신스님과 양 위원장은 대불산단 영업장을 찾았다. 사망자의 회사는 현장 진입을 계속 막았다. 이들은 “최소한 현장 근처라도 가야 영혼을 달래지 않겠느냐”며 “꼭 안에 들어가야 한다. 종교인 기도일 뿐인데 왜 막느냐”고 항변했다. 결국 공장 문은 열렸고, 캄보디아인 고 톱 소띠에 씨가 선박 블록에 깔려 죽은 자리에서 그를 추모했다.

이주노동자 추모 기도를 계속하는 이유를 묻자, 양 위원장은 “시신에 대한 존엄한 예우, 그리고 유족에 대한 예우, 이 기본적인 두 책무도 하지 않으면서 ‘돈보다 생명’이라는 등, 진실을 규명한다는 등 하는 건 다 거짓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사용자는 마땅히 분향소를 차려야 하고, 노동부는 지도 감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돈보다 생명, 돈보다 생명’ 그러지 않느냐”며 “최소한 우리나라에서 일하다 죽은 이주노동자의 존엄을 보장하지 않으면 노동부도, 대통령도 다 거짓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주노동자의 존엄을 찾는 싸움도 여기서부터 시작하자”라며 “고용허가제 폐지든, 노동3권 쟁취든, 여기서 비롯된 죽음에서 시작하지 않으면 다 모순”이라고 강조했다. “분향소는 진실을 밝히기 위한 공간이면서, 절도 하고 소주도 나누는 등 사람이 모이는 공간이다. 죽음을 사라지지 않게 하기 위한 공간이다. 이주 인권운동이 ‘분향소 투쟁’을 함께 해 나가면 좋겠다”는 게 양 위원장의 제안이다. **알터**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이주노동자 산재 사망 추모기도 활동 일지>

날짜	내용	피해자
2025.7.9	구미 폭염 사망 베트남 노동자 조문 기도	응오 두이 룡
2025.7.28	포항 폭염 사망 네팔 노동자 조문 기도	우다야 시레스타
2025.8.11	고흥 새우 양식장 감전사 태국·베트남 노동자 조문·장례 기도	
2025.10.30	대구 합동 단속 중 사망한 베트남 노동자 뚜안 조문 기도	부 뚜안
2025.11.11	경남 고성 양식장 익사 스리랑카 노동자들(2명) 조문 기도	
2026.2.25	영암 대불산단 가스 질식사 베트남 노동자 조문 기도	즈엉 반 탄
2026.2.28	영암 대불산단 깔림 사망 캄보디아 노동자 조문 및 현장 기도	툼 소띠에
2026.3.12	이천 컨베이어벨트 끼임 사망 베트남 노동자 분향소 기도	응우옌 반 뚜안
2026.3.13	부안 끼임 사망 태국 노동자 안치실 및 현장 기도	
2026.3.19	고령 주물공장 깔림 사망 태국 노동자 안치실 및 현장 기도	부앙 풍사콘
2026.4.7	익산 양어장 배수관 매몰 태국 노동자 추모 기도	
2026.4.23	경주 스리랑카 난민 혈액암 사망 안치실 추모 기도	